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참 고 자 료**	보다 나은 정부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8. 9. 12.(수)	담당부서	통상정책총괄과 FTA정책기획과 한미자유무역협정대책과
담당과장	박정성 과장(044-203-5620) 박찬기 과장(044-203-5740) 장성길 과장(044-203-5940)	담 당 자	손효정 사무관(044-203-5625) 박은솔 사무관(044-203-5743) 이디도 사무관(044-203-5942)

제10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

-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, 한러 서비스·투자 FTA 추진방향 논의 -

□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9. 12.(수)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**제10차 통상추진위원회**를 개최하여 **한-미 자유무역협정(FTA) 개정협상과 한-러 서비스·투자 자유무역협정(FTA) 협상** 관련 현황 등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.

< 제10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요 >

- **일시/장소** : '18. 9. 12일(수) 13:30~14:30 /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
- **참 석 자** : 산업부(주재: 통상교섭본부장), 외교부, 기재부, 농림부 등 13개 부처
- **논의안건** : ① 한-미국 FTA 개정협상 관련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
  ② 한-러시아 서비스·투자 FTA 협상 추진 계획

□ **김현종 본부장**은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이 **무역적자 해소**를 목표로, **다양한 무역제한 조치를 발동**하고 주요국들과 **동시다발적인 무역 협상**을 진행하는 등 세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다면서,

○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3월 한-미 자유무역협정(FTA) 개정협상 조기 타결 후 **서명을 위한 정부 간 협의가 진행**되고 있다며, 이는 **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**하는 측면에서 **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**한다.

○ 또한, 한미 FTA 개정협상 타결이 미국과의 다른 통상 현안도 슬기롭게 해결해나가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, **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다**고 말했다.

□ 최근 통상 현안과 관련하여 김현종 본부장은 미국의 **자동차 232조 조치**에서 **한국이 제외되도록 온** 힘을 다하고,

○ **미-중 무역 분쟁**에 대해서는 **엄중한 상황 인식** 하에 **분쟁 장기화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**하면서,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는 한편, 새로운 수출품목 발굴 등 **기회로 활용**하겠다고 말했다.

○ 또한 **주요 2개국(G2)에 집중**된 **교역 구조**도 **신흥국으로 다변화**해 나가겠다며, 관계부처의 **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**했다.

□ 한편, 한미 자유무역협정(FTA) 개정협상과 관련해 산업부는 **9. 3. 개정협상 결과문서를 공개**했고, **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추진**하고 있다.

○ 산업부는 앞으로 **9월하순 이후 서명을 목표로** 「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」 규정에 따라 **국회**에 **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.**

□ 또한, 유라시아경제연합(EAEU)*는 인구 1.9억 명, 국내총생산(GDP) 1.6조 달러의 **거대 유망시장**으로,

○ 올해 **6월 한-러 정상회담**시, 유라시아경제연합(EAEU) 주요 회원국인 러시아와 상호 공감대가 형성된 **서비스·투자 분야 자유무역협정(FTA) 협상을 우선 추진**하고, 이를 위한 **국내절차에 즉시 착수**키로 합의했었다.

* 유라시아 경제연합(Eurasian Economic Union) : 러시아, 카자흐스탄, 벨라루스, 아르메니아, 키르키즈스탄 5개국으로 이루어진 관세동맹('15.1.1. 출범)

○ 이와 관련, 우리 정부는 **최대한 조속히 국내절차를 마무리**하고 러시아와 **협상 개시를 추진**할 계획이다. 끝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손효정 사무관(☎ 044-203-5625), FTA정책기획과 박은솔 사무관(☎ 044-203-5743), 한미FTA대책과 이디도 사무관(☎ 044-203-594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